

영적 블모지에 새 역사를 쓴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유산과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빼지지 않는 곳이 경주일 것이다. 수학여행 단골 지역이 경주이기에 많은 사람에게 경주는 매우 친숙한 곳이다. 수학여행 때를 회상하며 오랜만에 경주를 찾았다. 역시 곳곳이 문화재로 둘러싸여 있었다.



＊ 전통과 역사의 중심에 서다



천마총을 지나 경주남부교회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교회를 보면서 또 다른 문화재를 보는 줄 알았다. 최근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는 등 전통양식으로 신축한 것이다. ‘역시 경주에 있는 교회라 외형부터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안팎이 모두 전통양식으로 건축되어 우리나라 전통의 미가 물씬 풍겼다.

경주남부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회는 경주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경주 남부지역에는 교단을 초월해 교회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 교회가 바로 예장 통합교단 소속의 경주남부교회다.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에 경주남부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특히 교회가 있는 황남동은 예전에 부자와 양반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둘러싸고 폐가처럼 보이는 집이 한두 채가 아닐 정도로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게다가 주변에 즐비한 점집들이 그 지역의 영적 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교회가 서기에는 어렵다 보니 교회를 재건축할 당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부지도 마련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담임목사(1대 담임목사, 현 원로목사)와 성도들은 “경주남부교회마저 떠나면 영적으로 척박한 이 지역을 누가 지키고 섬기겠느냐”며 그냥 남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주남부교회가 지금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남은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 주님께서 준비시키다

김만조 원로목사가 1977년 개척한 경주남부교회에는 현재 2대 담임목사로 김상정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재미난 사실은 김상정 목사가 1979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주남부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겼고, 담임목사가 되기 전 부목사로 5년을 섬기기도 했다. 김 목사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있었기에 어찌 보면 경주남부교회 담임목사로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었던 셈이다.

모태 신앙인 김상정 목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벽 부흥집회에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다. 이후로 목회에 대한 소명을 접지 않고 꾸준히 목회자의 길을 닦았다. 김 목사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부전공으로 준비했다. 김상정 목사는 자신이 경주남부교회 담임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김상정 목사는 계명대 철학과와 장신대(M.Div.), 계명대(Th. M.), 예루살렘비브리칼 아카데미 박사과정 중이다.

서울영동교회 전도사, 경주남부교회 부목사, 서울 무학교회 부목사를 거쳐

현재 경주남부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는 경주남부교회 부교역자 시절, 2년간 천식으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매일 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온몸에 쥐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수차례 졸도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김상정 목사는 강단에서 다니엘 3장 18절을 설교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바로 김 목사 자신의 고백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죽더라도 설교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것이 김상정 목사가 여러 학력 좋은 후보들을 제치고 담임목사로 내정된 큰 계기가 되었다.

김 목사는 경주남부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 무학교회(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에서 마지막 부교역자 사역을 했다. 김 목사는 무학교회에서 양육반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가르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 목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보통 갓 들어온 부목사에게는 잘 맡기지 않는 양육반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다 주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김 목사는 경주남부교회 부교역자 시절부터 경주남부교회에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김 목사 자신이 목회할 교회의 토양 분석을 잘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는 교회의 장단점을 파악해 무엇에 더욱 집중해서 사역할지를 결정하는 목회적인 전략으로, 전통 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김 목사는 무학교회에서 연구하고 가르친 다양한 성경공부와 양육프로그램이 경주남부교회의 담임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김상정 목사는 무학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하게 되었다. 제자반을 맡게 되면서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이후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목사는 일찍부터 목회의 소명을 받고 학부에서부터 신학과 철학으로 탄탄하게 목회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실제 목회에 필요한 개념이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CAL세미나를 참석하게 됐고 그동안 찾고 갈구해 왔던 목회의 본질과 개념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다고 한다.

김 목사는 특히 교회론 강의를 들으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라고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무학교회에서의 2년간의 제자훈련 인도의 경험도 큰 은혜였지만, 자신이 담임으로 섬기는 교회가 제자훈련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한다.

★ 양반문화 속에서 제자훈련의 뿌리를 내리다



말씀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던 경주남부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상정 목사는 부임 후 1년간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 새벽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이미 17년 동안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새벽기도 총진군’을 고스란히 계승해 집중했다. 새벽기도 총진군은 경주 지역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기도회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성도가 출석해 기도에 전력을 쏟는다.

더불어 말씀에 있어서도 사력을 다했다. 김 목사는 거의 모든 외부 행사를 거절하고, 말씀 연구에 집중해 부임 후 현재까지 성경 66권 중 5권



경주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경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지역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양반문화와 양반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을 철저히 연구해 정리했다. 제자훈련 목회자의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의 권위에서 나온다고 믿고 지금까지 말씀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일을 통해 김상정 목사는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있어서도 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본 교회 출신이라 어려서부터 자신을 알던 중직자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는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 리더십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담임 사역의 정착기간을 밟은 지 1년 만에 김상정 목사는 바로 제자훈련을 하기로 마음 먹고 훈련생을 모집했다. 1기 제자반은 두 개 반으로 12명의 남성반과 12명의 여성반으로 시작했다. 중직자 중심으로 제자반을 운영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훈련은 현재 5기까지 약 100여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했고, 올해는 6기 제자훈련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제는 경주남부교회 중직자 선출 요건에 제자훈련이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경주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경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지역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양반문화와 양반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유교가 지배적이어서 기독교는 전체의 6.5퍼센트밖에 안 된다. 또한 매년 경주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약 1,20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상정 목사 부임 이후, 경주남부교회는 해마다 약 100명씩 성도 수가 늘고 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 100명도 근처 교회에서 평행 이동을 해 온 숫자가 아니다. 옆 동네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성도들은 거의 돌려보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출신이거나 새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해마다 20명 정도의 수료생들을 배출하는 제자훈련이 단순히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 6기 제자훈련이 진행 중인데, 제자훈련을 정착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토양 자체에 양반문화와 체면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에 성도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1기 제자반 중에는 삶을 나누는 것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성도들에게 낯선 큐티와 생활숙제를 익숙하게 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경상도, 그것도 유교문화가 팽배한 경주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제자훈련이 가능할지 목회자로서 염려가 적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목회의 본질이라면 지역을 초월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제자훈련에 집중했다. 그 결과 훈련생들이 진솔한 나눔 속에서 감명받는 것은 물론, 성도 간의 앙금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숙제 때문에 힘겨워하던 훈련생들이 수료 후에는 “전 교인이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파하며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단이 판치는 경주지역이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튼튼한



경주남부교회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의 신뢰의 관계는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훈련생들은 훈련을 인도하는 부교역자를 신뢰하는 것은 물론, 부교역자가 신뢰하는 담임목사를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김상정 목사는 감사해 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중직자는 만 5년을 계속 새가족 부장으로 섬기면서 새가족 전문가가 되었다.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면 이단들이 걸러질 정도로 이단 전문가도 되었다. 함께 섬기는 새가족 부원 거의 전부가 제자훈련을 받고 섬기고 있다. 과거 수동적으로 교회를 섬긴 것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들과 동역 관계를 이룬 것이다. 그야말로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깨워 참다운 평신도 사역을 하게 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의 신뢰로 세워진 제자훈련

그런데 이렇게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과 좋은 열매를 얻은 김상정 목사는 현재 제자반을 맡고 있지 않다. 1기 만 제자훈련 사역을 인도하고, 2기부터는 부교역자들에게 맡겼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다.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질문에 대해 김상정 목사는 전부터 앓았던 천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시간 부족으로 여러 반을 맡기는 어려워도 한 반이라도 맡아 볼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담임목사의 제자반으로 훈련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생겨 모두 부교역자들에게 제자반을 맡겼다고 답했다. 김 목사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무학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보니 제자반을 하면 그 제자반이 인도자의 제자반이 되는 걸 보았어요. 담임목사로서 그런 점이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고 부교역자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했습니다. 설사 제자반을 맡은 부교역자가 제자반을 이끌고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목사는 부교역자들과 철저한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 김 목사는 담임목사 부임 초기, 부교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전적으로 부교역자들을 신뢰하고, 제자반을 맡기고 있다. 부교역자들도 언젠가는 담임 목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적 위탁과 신뢰 관계만이 훈련사역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부교역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실하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면 서너 가지를 성실히 감당합니다. 저는 부교역자들을 형제 이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서 김상정 목사는 부교역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해주고,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록 부교역자들을 외부 설교 프로그램에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만 5년을 사역한 부교역자 부부에게는 성지순례의 기회까지 주고 있다. 경주남부교회의 한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담임목사님은 저희를 단순히 부교역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동역자로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죠.”

경주남부교회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끈끈한 신뢰의 관계이다. 이런 신뢰의 관계는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훈련생들은 훈련을 인도하는 부교역자를 신뢰하는 것은 물론, 부교역자가 신뢰하는 담임목사를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 나아가 훈련생 자신이 신뢰하는 목회자들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경주남부교회의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 간의 끈끈한 신뢰의 관계는 경주남부교회 제자훈련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아가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훈련 목회를 동역하고 있기에 앞으로 부교역자들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제자훈련 목회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상정 목사는 국제제자훈련원이 감당하고 있는 건강한 제자훈련 목회 확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 제자훈련은 삶의 변화다!

그렇다면 경주남부교회의 훈련생들은 제자훈련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할까? 몇 명의 간증을 들어봤다. 5기 수료생 김현숙 집사는 제자훈련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제자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과정이었습니다. 왜 ‘제자공부’라 하지 않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지, 1년의 과정이 지나고 나니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설교 말씀과 예배, 행해 오던 사역들 그리고 가정과 사회생활의 모든 의미가 제자훈련을 통해 한 편의 큰 퍼즐 그림이 완성되듯이, 제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산만하던 제 믿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3년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세월동안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훈련과정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체험으로 말미암아 부족하던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제자반 5기 과정의 모든 훈련생도 지금껏 훈련받은 모든 과정을 통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제자훈련에 전념한 훈련생도 있다. 양경권 집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할 무렵 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섭외가 들어왔다. 또한 공예업을 하는 양 집사는 오랫동안 참가해 온 경주 문화축제 행사가 대부분 주일을 포함하고 있어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기대감으로 모든 것을 접었다고 한다. 그런데 양 집사에게 제자훈련은 큰 기대감만큼이나 큰 어려움이었다고 고백한다.



“제자훈련 과정을 대학교 교양과목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대학 다닐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독서 과제물과 큐티 과제물, 그리고 성경통독 등 날마다 압박해오는 과제물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요. 성격 탓인지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훈련반은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죠. 과제물도 과제물이지만 한동안 약간의 우울증세가 생겨 그만둘까 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 낸 디딤돌은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 속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통과 위로, 이겨낼 힘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제자훈련 내용 안에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훈련생 모두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자훈련을 통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 한 번 제자훈련이 머리에 지식만을 채우는 일반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아니며,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나아가 삶이 변화되는 훈련임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깨워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많은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삼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기 않고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 지금보다 더 역동적인 교회를 꿈꾸며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경주, 그것도 남부지역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경주남부교회에 대해 조금 아쉬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 6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사역훈련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정 목사는 현재 제자훈련만으로도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말한다. 제자훈련 수료생들의 헌신도가 매우 크고, 교회 내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몇 가지

사정으로 사역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사역훈련은 평신도 리더가 깨닫고 익혀야 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권을 통해서는 신앙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2권에서는 교회론과 제자도를 다루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교회관과 평신도의 자아상을 바로잡아 준다.

마지막으로 3권에서는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그리고 귀납적 성경공부가 무엇인지를 알려줘 훈련생이 장차 소그룹을 인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렇게 사역훈련 전반적인 내용은 평신도 리더를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주남부교회는 현재 교단 총회에서 발간하는 교재를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의 구



역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구역장이 되어 전통 구역예배 형식에 역동적인 소그룹 문화가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제자훈련만으로도 소그룹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면 사역훈련 실시 이후는 소그룹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을 물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로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사역훈련은 더욱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소그룹 구성원들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리더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헌신된 리더와 그가 인도하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회 내에 제2, 제3의 제자와 리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꿈과 비전으로 새 역사를 쓰다

영적으로 불모지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주남부 지역에 경주남부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경주남부교회는 현재 평일 주변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반찬을 무료로 만들어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선교지는 물론 미자립 교회와 여러 기독 단체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김상정 목사는 경주남부교회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이웃들을 돋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웃들을 물질적으로 돋고, 교회의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눈을 돌려 구제 사역과 더불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경주남부교회를 꿈꾸고 있다.

한편 경주남부교회는 학원 사역에도 관심을 두고, 유치원부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서 영적 인재 양성의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원대한 꿈과 비전에 제자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 밀한 옥한흠 목사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헌신된 제자들이 계속 배출되어 기존 사역은 물론,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도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그 누구보다 더 헌신적으로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김상정 목사는 제자훈련 졸업반을 중심으로 선교를 지원하고, 장차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교사로 세워 파송할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경주남부교회는 그동안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며,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것이 경주남부교회가 현재의 장소에 세워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이유인 것이다. 경주남부교회가 단순히 수적으로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경주 남부지역과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경주남부교회는 그동안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며,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새 역사를 쓰고 있다.